

2024. 4. 23.(화) 조간용

이 보도자료는 2024년 4월 22일 오전 11: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보도자료

담당 부서: 서울공예박물관 수집연구과

서울공예박물관장	김수정	02-6450-7010
수집연구과장	김서란	02-6450-7050
관련 누리집 (메뉴)	craftmuseum.seoul.go.kr	

사진 없음 사진 있음 쪽수: 4쪽

서울공예박물관 국내 최초 옷칠공예 전시상자 개발·독일서도 극찬

- 보존과학, 산업디자인, 무형문화재 등 각계 전문가 참여하여 2년여 연구 개발
- 옷나무에서 옷칠, 옷칠에서 칠기까지 시대를 관통하는 옷칠공예의 정수
- 한국과 독일의 옷칠 전문가 교류회 개최...옷칠공예상자 선보여
- 유튜브에 제작 비하인드 스토리 담은 제작진 인터뷰 영상도 함께 공개

- 서울공예박물관(관장 김수정)은 한국 옷칠공예 재료·기술의 역사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이동식 아카이브인 '옷칠공예상자'를 제작했다고 18일 밝혔다. 2021년 공개한 '백자공예상자'에 이어 두 번째로 선보이는 <한국공예상자> 시리즈이다.
 - <한국공예상자(K-Craft Box)>는 공예 분야별 재료·기술 표본을 제작하고, 수납하여 전시하는 이동식 아카이브이다. 서울공예박물관은 앞서 '백자공예상자'를 공개하고, 이를 바탕으로 특별전시 <백자, 어떻게 흙에다가 체운을 넣었을까>를 개최한 바 있다.
- 한국의 옷칠공예는 삼국시대 이전 기원전 1세기에 시작되어 오늘에 이를만큼 긴 역사를 자랑한다. 특히 그중 장식기법인 나전은 옷칠 문화가 발달한 아시아 문화권에 서도 한국의 대표 공예로 자리 잡았다. 이처럼 깊은 역사를 가진 옷칠공예의 재료와 기술을 시민들이 한눈에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한 것이 '옷칠공예상자'이다.

□ ‘옷칠공예상자’는 공예사·보존과학·산업디자인 분야 전문가 10여 명과 협업하여 2년여 진행한 연구 개발 프로젝트이다. 한국 고대~일제강점기 칠기(漆器) 유물의 재료·기술 사례를 실물 표본으로 만들어 전시하고,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특성을 파악하였다. 주제별 상자 2개(▲재료상자 ▲기법상자)로 구성되었다.

○ 서울공예박물관의 주관 아래 표본 제작과 보존과학적 분석 연구는 공주대학교 문화재보존과학과(책임연구원 김규호 교수), 상자 설계와 제작은 (주)파운드파운디드(대표 송규호)에서 수행했다. 폭 68cm, 높이 170cm의 2단 접이식 구조로 내부에는 개별 표본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미디어 검색 키오스크를 장착하여 원하는 표본 정보를 터치하여 볼 수 있다.

○ 재료상자는 옷나무에서 채취한 수액을 옷칠로 가공하는 과정을 담았다. 가공 단계에 따른 종류별 옷칠, 옷칠과 섞어 다양한 색상을 내는 안료, 옷칠의 농도를 조절하는 희석제 등 92점의 표본으로 구성했다.

- 이 표본은 강원도 원주에서 활동하는 김부노 채취장이 옷나무 수액을 시기에 따라 단계별로 채집하고 각 지역의 칠정제장 3인(국가무형문화재 정수화, 충남 무형문화재 문재필, 전북 무형문화재 박강용)이 정제한 것이다. 이 과정에서 사용되는 도구는 안영배 채취장과 이의식 칠장(전북 무형문화재)이 기증하여 상자에 전시했다.

○ 기법상자는 기물 바탕에 옷칠하고 장식하는 과정을 다루었다. 칠기 바탕의 재료, 옷칠과 섞어 강도를 보강하는 회(灰)*, 나전(螺鈿)*·대모(玳瑁)*·칠화(漆畫)*·난각(卵殼)* 등 시대별 칠기 장식기법을 보여주는 57점의 표본이다.

*회(灰): 다양한 재료를 태우거나 빻아서 만든 재이다. 옷칠과 섞어 칠기 바탕의 흠과 결을 메우거나 모양을 다듬을 때 사용한다. 동물의 뼈를 구워서 빻아 만든 뺏가루(골회), 황토 흙으로 만든 가루(토회), 숯을 빻아 만든 가루(탄회) 등이 있다.

*나전(螺鈿): 전복이나 소라 등의 어패류의 광택이 나는 부분을 얇게 오려내 기물 위를 장식하는 기법이다. 얇게 오려낸 진주층을 자개라고 하며 자개를 오려 붙이는 방법에 따라 모양대로 넓게 오려내는 줄음질, 얇고 긴 선 형태로 오린 후 끊어가며 붙이는 끊음질 등으로 나뉜다.

*대모(玳瑁): 태평양·인도양·대서양의 열대 바다에 서식하는 바다거북의 일종이다. 등딱지에 있는 특유의 얼룩이 화려하여 예로부터 공예품의 재료로 많이 사용되었다. 고려시대부터 옷칠한 바탕에 얇은 금속선과 대모거북의 등딱지를 붙여 꾸민 칠기가 제작되었다.

*칠화(漆畵): 옷칠에 색을 내는 안료를 섞어 다양한 색상을 만들고 그림을 그려 장식하는 기법이다. 고대 낙랑 유적에서 유물이 많이 발굴되었으며 일제강점기에 이를 재현한 상품이 상점가에서 인기가 많았다.

*난각(卵殼): 달걀 껍데기 조각을 옷칠한 바탕에 균열을 내어가며 붙이는 기법이다. 난각의 흰 표면과 어우러진 균열이 모던한 느낌을 주어 현대 옷칠 작품에 많이 사용된다.

□ 17일에는 ‘한국의 옷칠공예’를 주제로 독일의 옷칠 전문가들과 학술교류 행사를 진행했다. 국제전 초대 옷칠작가, 미술사학자, 보존과학자 등 독일 각계 옷칠 전문가 8명이 서울공예박물관을 방문하여 박물관 전시와 ‘옷칠공예상자’를 관람했다. 한국 전문가로 정수화 장인(국가무형문화재 칠장 보유자), 이선주 보존과학자(한국전통문화대학교 강사)가 참석하여 한국 칠기를 소개했다.

○ 독일의 옷칠 전문가들은 주로 독일 옷칠미술관*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인물로 대표인 파트리시아 프리크(Patricia Frick) 은 “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여 작품을 감상했는데 중국과 일본에 비할 만한 뛰어난 기술에 놀라웠다. 특히 ‘옷칠공예상자’는 유럽에서도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콘텐츠이다. 이번 기회를 토대로 향후 한-독 옷칠 교류에 대한 기대가 크다.”라고 소감을 전했다.

*독일 옷칠미술관(Museum für Lackkunst)은 유럽 유일의 옷칠 전문 미술관으로 1993년 독일 뮌스터에 설립되어 페인트 회사 BASF가 운영했다. 그러나 기업의 사회적 공헌을 위해 LWL 예술문화박물관(LWL-Museums für Kunst)에 약 1,250점의 소장 컬렉션 기증을 결정하면서 2024년 2월 문을 닫았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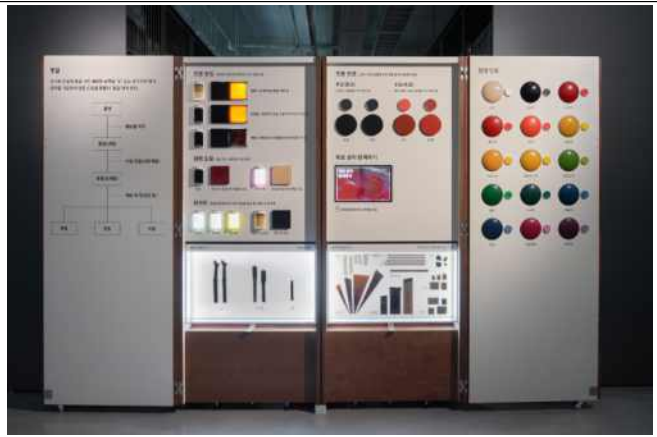
□ 서울공예박물관은 올해 하반기부터 일반 관람객이 ‘옷칠공예상자’를 만나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. 또한 국내외 이용자들이 박물관을 방문하지 않고 분야별 〈한국공예상자〉 표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서비스를 조성할 예정이다. 다가오는 5월 3일에는 서울공예박물관 유튜브(@SeMoCATV)에 ‘옷칠공예상자’의 전모를 소개할 비하인드 인터뷰 영상이 공개된다.

□ 김수정 서울공예박물관장은 “이번에 공개하는 ‘옷칠공예상자’를 통해 나전칠기의 대중적 인기에도 불구하고 많이 알려지지 않은 한국 옷칠이 주목받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.”라며, “2025년에 개최할 옷칠공예 연구성과 기획전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.”라고 전했다.

붙임. 옷칠공예상자 및 교류회 사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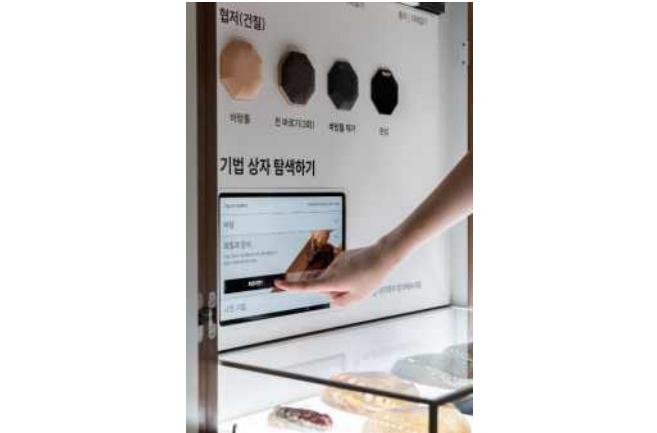
옷칠공예상자 외관



옷칠공예상자 내부(재료상자)



옷칠공예상자 내부(기법상자)



검색 키오스크 작동 모습



독일 옷칠 전문가 상자 관람



독일 옷칠 전문가 교류회